“불교영화 중흥 위한 새로운 이정표 될 것”

구담스님, 영화 ‘불교 진혼곡’ 제작발표
첫 독립 장편영화 2월 27일 크랭크인

“전생 통한 현실의 ‘나’ 보고 깨달음 얻어”
‘다시 피고지는 그 뜻은’ 배우 등 전면 수정
9월 세계일화불교영화제서 최초 상영 예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영화 ‘불교 진혼곡’의 한 장면.

영화감독 구담 스님이 독립장편영화 ‘불교 진혼곡(러닝타임 70분)’ 첫 촬영에 들어간다. 구담 스님은 2월 14일 파인트리 시어터에서 영화 ‘불교 진혼곡’ 쇼케이스(연기 리허설)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27일 크랭크인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후원하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제작 지원하는 영화 ‘불교 진혼곡’은 과거 소개된 바 있는 구담 스님의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을 제목과 배우, 내용 등을 수정 · 교체해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우선 영화의 규모를 줄이고 마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추가했다. 배역을 일반 배우에서 전문 무용수로 교체했으며 스토리도 현생 부분보다 과거 전생 부분의 이야기 중심으로 바꾸었다.

연출을 맡은 구담 스님은 “우선 영화의 규모를 조금 줄였고, 무용이 중심인 영화인데 일반 배우들이 단시간에 익힌 무용으로는 영화의 내용을 충분히 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무용극으로서 최대치의 효과를 내기 위해 마임이라는 장르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무용의 단아함과 아름다움, 마임의 섬세함과 신비함 그리고 불교의 성찰이 어우러진 ‘불교 진혼곡’은 오는 2023년 9월 세계일화불교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는 대부분의 촬영이 극장(무대)에서 진행되며 영화적 서사 위에 한국무용과 마임이 더해진 국내 최초의 독립장편 무용극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주인공인 수인의 49재를 지내는 제의적 공간에서 전생과 환생을 거듭하는 성찰의 이야기다. 수인을 짝사랑하던 광대 기도가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하여 공주인 수인이 있는 침실로 들어와 궁에 소란이 일어난다. 이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궁에서 쫓겨난 수인은 시종인 무사와 함께 구렁이의 해원을 위해 전국의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린다. 마지막 굴 법당에 이르러 구렁이가 공주의 몸에서 풀려나자 무사와 구렁이의 혈투가 벌어지고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다시 맹인 무녀로 환생한 수인과 어린 동생 선아는 독룡 때문에 황폐해진 마을 사람들의 청으로 독룡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독룡의 천도를 위한 의식이 펼쳐진다.

영화는 생의 끝없는 순간 속에서 어떻게 본질적인 주체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다른 시간대의 인연이 옴니버스처럼 이어지며 시공간을 뒤틀지만 오히려 주인공의 사랑과 희생은 뒤틀어진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근원적인 가치를 무용과 마임으로 구현한 새로운 기법과 형식을 선보인다.

구담 스님은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수많은 전생을 통해 현실의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을 자각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영화의 메시지를 설명했다.

영화 ‘불교 진혼곡’은 불교영화의 미래적 대안인 불교예술영화를 위한 것이면서, 현재 불교영화 중흥을 위한 불교 기획영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구담 스님은 “대중적인 상업영화 제작을 위한 대규모 제작비 투자가 어려운 현실에서 작품성 있는 저예산 독립장편영화의 활발한 제작이 불교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 ‘불교 진혼곡’은 불교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담 스님의 첫 작품인 ‘두 번째 화살(2018)’은 〈아함경〉에 나오는 두 번째 화살에 비유한 삶과 죽음의 성찰을 주제로 했으며, 두 번째 작품 ‘불타는 다이어트(2019)’는 명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트라우마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제사(2020)’는 고전 〈삼국유사〉의 내용을 모티브로 한 억눌린 자아의식에 대한 성찰을 그렸으며, ‘오월의 만다라(2021)’에서는 광주 5.18 민주항쟁과 불교를 배경으로 출가수행자의 사회적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홀로 빛나는 어둠(2022)’은 현대 영화 시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다.

주연 수인 역의 박기량은 현재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생이다. 기도 역의 이정훈은 마임니스트로 연극, 방송, 영화 등에 다수 출연했다.

촬영은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회 걸쳐 진행된다. 촬영의 대부분은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연출과 제작을 맡은 구담 스님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 사이트(https://link.tumblbug.com/TmYmDhA99wb)를 통해 제작비 모연을 진행 중이다. 3월 9일까지 텀블벅 펀딩 사이트를 통한 모연을 진행한다. 문의 (010)-4656-1855.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를 실감하다’ 일반공개

백제유산 소재 제작 신기술융합콘텐츠
길이 12m · 높이 2.4m 초고화질 LED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활용 영상 상영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형원)은 2월 10일 백제의 대표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백제를 실감하다’를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의 테마는 ‘디지털 쉼터’이다. 이 쉼터는 한국의 전통적인 툇마루와 평상을 구현한 공간으로 길이 12m, 높이 2.4m의 대형 초고화질 LED화면의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다. 툇마루에 올라 영상에서 안내하는 명상 자세를 따라하면 관람객의 동작을 인식하여 반응하는 인터렉티브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에는 부여 규암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백제금동대향로, 왕흥사지 사리기, 부여 외리 유적 문양전을 활용한 감각적인 영상이 각각 상영되는데, 모두 널리 날려진 백제의 빼어난 문화유산이다.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 작은 보주를 잡고 있는 독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불상의 수준 높은 공예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상을 소재로 한 ‘깨달음의 손짓’에서는 관람객이 화면의 자세를 따라 하면서 직접 영상 속의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볼 수 있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리기로, 단아한 형태와 보주형 꼭지, 주위를 장식한 연꽃 문양이 주목된다. 또한 가장 바깥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銘文)은 왕흥사의 창건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귀한 재질인 금, 은, 동을 순서대로 사용하여 백제 사리장엄의 고귀한 면모를 보여준다. 왕흥사지 사리기의 ‘인내의 열매’에서는 관람객이 명상 자세를 하면서 영험한 기운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관람객이 쉽고 편하게 전시품을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신기술융합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41)830-8413.

박재완 기자

정율 스님 4대종교평화음악회 개최

‘수도자들의 영혼의 울림(버스킹)’
화엄사 3월 11일, 4대 종교 함께해
성당 · 교회 · 교당서 공연 이어가



40여 년 동안 무대를 선방삼아 음성포교에 헌신해온 정율 스님이 범종교적 음악회를 연다.

3월 11일 오후 1시 구례 화엄사에서 열리는 ‘수도자들의 영혼의 울림(4대 종교평화음악회) 버스킹’이다.

정율 스님, 무상 스님, 구자억 목사, 김성경 목사, 한청복 교무, 김성곤 교무, 정범수 신부, 부다스 합창단(100~120명), 부다스 앙상블(4~6명)이 출연한다. 종교 간의 화합과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뜻을 담아 대중에게 커다란 위안과 즐거움을 주고자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사찰을 시작으로 성당과 교회, 교당을 차례로 돌며 버스킹(거리공연) 형식으로 진행한다.

부다스 합창단의 동요와 찬불가를 관객들과 함께하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앙상블의 간단한 연주 후 찬불가 ‘차 한 잔 마셔요’를 비롯해 ‘나뭇잎배’, ‘오빠생각’, ‘작은별’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부르며 종교를 초월하는 버스킹을 펼칠 예정이다.

정율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원광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음악교육학 석사를 마쳤다. 샌프란시스코와 LA, 오렌지 카운티에 불교 합창단을 만들었고, 샌프란시스코 한국 최초의 성당에서 사랑, 자비, 희망의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박재완 기자

